

# 양계농가의 협조가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이 상 길 축산국장

양계농가의 변함없는 동반자로서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월간양계」 창간 37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소중한 지면을 할애(割愛)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양계산업은 WTO 출범에 따른 시장 개방과 IMF 외환위기, 조류인플루엔자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규모화·현대화를 통한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에 이르렀으며, 여기에는 월간양계를 비롯한 전문잡지의 숨은 노력과 양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FTA 확대에 따라 외국 축산물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축산물 안전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친환경축산이 대두되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난제(難題)를 생산자와 관련업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할 계획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양계농가의 협조가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양계 의무자조금의 조기도입

의무자조금은 생산자 자율적으로 수급안정과

소비기반 확대를 꾀하는 제도지만 가금분야는 다른 축종과 달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자조금 도입에 관련 종사자 모두가 협조적인 자세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종계 D/B자료 정확도 제고를 위한 농가협조

닭고기와 계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계 D/B구축 작업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종계D/B 구축사업은 입식부터 도태단계까지 종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관리·분석하여 정확한 수급자료를 농가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이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농가의 정확한 자료제공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 강제환우 근절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강제환우는 수급불안정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질병감염 위험성도 높고 건강하지 못한 실용 병아리 생산으로 저품질의 계란이 생산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병아리 생산을 통한 고품질의 계란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질병예방을 위해서라도 강제환우는 조속히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철저한 방역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모든 농가에서는 철저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가금산물 생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AI와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은 산업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에 가금질병이 근절될 수 있도록 소독을 철저히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친환경 축산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양계산업 육성

이제 친환경 양계산업을 이룩할 때입니다.

계분의 자원화를 위한 시설투자, 약취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제사용, 사육시설 개선등을 통하여 양계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정책자금 지원방안 개편 등의 제도개선과 생산·유통·판매단계까지 합리적인 자원배분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하여 양계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양계는 74% 이상이 3만수 이상의 전업농가로서 축산품목 중에서도 이미 상당히 선진화된 분야입니다. 축산농가와 관련단체,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노력한다면 더욱 발전된 양계산업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월간양계” 창간 37주년을 축하드리며, 양계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계**

## 양계산업의 길잡이 역할을 기대한다

송 석 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양계현장에 항상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월간양계가 올해로 창간 37주년을 맞이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동안 국내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많은 역할과 큰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합니다.

월간양계는 그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양관리기술, 질병예방관리, 양계산물 마케팅, 친환경 및 유축산, 해외양계정보, 시세와 수급동향 등 양계산업과 관련된 최신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함으로써 양계분야는 물론 축산업계 종사자들에게 양계관련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양계산발전을 선도하는 월간지로 크게 자리매김 되었다 하겠습





니다.

최근의 양계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한·미 FTA 와 DDA 협상 등과 관련하여 전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다같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성 가축질병인 AI가 유럽과 아시아 등에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겨울 철새 도래간에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방역추진이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한편 소비자들의 축산물에 대한 인식도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안전 축산물 생산, 친 환경 축산, 동물복지의 고려 등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소비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소비자의 안전 축산물에 대한 요구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양계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면과

과제들도 우리 양계농가와 관련업계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실천해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계농가에서는 경영의 합리화와 생산비의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안전하고 차별화된 특색 있는 양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양계산물 가공공장이나 식품업계에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 품질면에서도 소비자가 합당한 대

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의 생산 공급을 위하여 박차를 가해야겠습니다.

또한 농협에서도 양계경영을 선도하는 핵심농가를 육성해 나가고 계통사업장의 HACCP 인증과 올해 새로이 도입된 식용란검사요령에 따른 계란의 품질검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가금수급안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수급안정대책의 추진과 양계자조활동자금제도의 도입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37주년을 맞은 월간양계가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륜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미래의 양계산업을 개척해 나가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전국의 양계현장에서 이 나라 양계산업 발전을 위하여 땀 흘리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양계인 여러분과 그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양계**

# HPAI 등 양계 위기에 현장 목소리 대변지로 큰 역할...

강 문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먼저 『월간양계』의 창간 37주년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 직원을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국내 양계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에 대해 최준구 양계협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양계산업에 기여한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월간양계』는 지난 37년 동안 양계관련 업종의 종합전문 월간지로서 양계인의 권익보호와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등 “양계인의 벗”이었으며, 축산현장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농정에 반영되도록 전달해 줌과 동시에 정책대안을 제시해 준 ‘농정의 동반자’요, ‘대안적 비판자’였습니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중국, 몽골,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인적·물적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양계산업 앞에는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03년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후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초동방역에 성공함으로써,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지속적인 질병발생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가져왔음을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모든 관련 분야의 주체들이 다시 한번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북방 주변국으로부터 철새들이 도래하는 위험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고 금년에도 변함없이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직도 뉴캐슬병 등 악성 전염병이 여전히 국내 양계 산업의 생산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방지 또는 최소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장 단위에서의 “차단 방역의 실천”입니다. 전국의 한 개 한 개의 양계장에서 출입자를 비롯 출입차량 통제와 소독실시 등 차단 방역을 착실히 수행할 때, 양계산업 전체가 질병청정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르는 가축의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각오아래 자율적인 신념과 각오로 외부인 및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는 물론 농장입구와 축사 내외부에 대한 세척 및 소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십시오.

『월간 양계』가 지난 37년 동안 IMF사태와 조류인플루엔자 파동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정보와 방향을 제시해 주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줌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축산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양계농가, 생산자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어 우리나라 축산업이 개방화·정보화·국제화의 현실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한 몫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월간양계』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양계

## 양계산업을 ‘희망산업’으로 이끌어 가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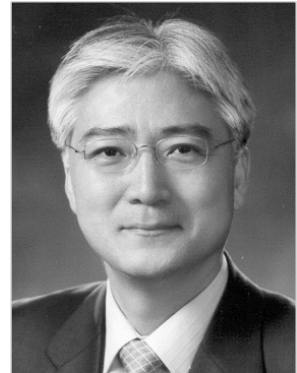
최 정 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월간양계』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69년 대한양계협회 기관지로 창간되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계인들의 유익한 정보원이자 친구로 제 몫을 다하며 양계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져 온 『월간양계』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계업은 40여년 동안 규모화되고 전문화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3년 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양계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양계인과 정부 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요구가 날로 커지고, 조류인플루엔자와 뉴캐슬병의 발병 위험이 상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월간양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양계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현장에서 발굴하여 제공하는 일도 더욱 성실하게 추진하길 부탁드립니다.

창간 37주년을 맞은 『월간양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항상 양계인들 보다 한 걸음 앞선 생각과 분석·기획으로 양계산업을 “희망산업”으로 이끌어 가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월간 양계』가 양계산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길 바라며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양계



# 양계산물 안전성 좌시해서는 안된다

신 정 재 한국동물약품협회장

창간 3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오신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 축산업은 그동안 세계 무역자유화 바람 속에 현실화된 축산물시장 개방으로 엄청난 충격 속에서 생존이라는 절박한 과제에 봉착하게 되었으나, 우리 축산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생명산업인 축산업을 수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힘과 지혜를 결집하여 개방의 된서리를 묵묵히 이겨내며 여러 난관을 극복함으로써 축산업을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산업으로써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약제잔류 · 항생제 내성 등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환경문제 등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편파적으로 보도되어 축산업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며, 만에 하나라도 축산물 안전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여 차단하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약제잔류의 문제는 후기사료 급여, 휴약기간 준수 등 축산농가의 확고한 의지와 도축 · 출하단계에서의 철저한 검사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생제 내성과 관련하여서도 임기응변식의 무조건적 사용규제가 아니라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항생제 수요 억제, 항생제 대체 및 보조약제 개발, 기존 항생제의 신중한 사용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계산업의 동반자로서 곳곳에서 함께 했던 월간양계가 다양한 정책제시와 정보전달, 여론형성 등 충실한 조연자의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계**

# 양계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길

김 경 남 축산물등급판정소장

월간양계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많은 축산물 중에서도 닭과 계란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현대인에게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계란은 등급판정을 시작한 이래 등급판정물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등급판정 받은 계란의 신선도와 영양적 가치는 점차 그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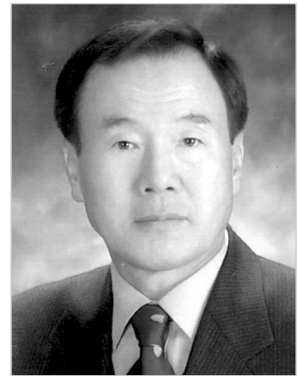
이러한 명성이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지난 여름에는 집중폭우와 혹서로 일부 양계농장에 피해를 입혀 양계농가에 시름을 주어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빠른 복구와 재기를 기원하는 응원을 보냅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양계산업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최근 정부정책도 축산물의 품질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으며,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도 계란의 등급판정을 통하여 가축개량에 활용하게 하고 규격화된 축산물생산 유도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안전한 축산물과 고품질 축산물에 관심이 많아서 가금인플루엔자 등 양계산업에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하면 국내소비 위축과 가격하락으로 양계산업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양계산물의 국내 소비의 증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계란의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고 닭고기의 등급판정을 재추진하고 있으며 등급판정소에서 축산관련 홍보 행사를 할 때에는 등급판정 받은 계란을 관람객에게 나누어 주며 홍보함으로써 우리 양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계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소독, 자율방역으로 질병 방역 수준과 위해요소의 관리 등 위생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처럼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힘찬 전진을 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아울러 월간양계는 지난 30여년간 끊임없이 각종 양계관련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전을 견



인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여 기쁨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건강에 대한 책임감을 진다는 자세로 지속적인 임무를 다함으로써 그 존재의 가치를 드 높일 수 있을 것

이며, 또한 월간양계의 발전은 한층 무르익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월간양계의 창간 37주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계**

## 계획생산을 통한 양계산업 안정화에 노력

오 정 길 한국양계농협 조합장

먼저 월간양계 창간 37주년을 축하합니다. 창간이래 우리 양계산업을 대변하여 힘써 주신데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계산업은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은 우리 양계인으로서 부인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대한 양계협의 역할과 월간으로 발간되는 월간양계의 역할이 지대한 영향이 있음에 더욱 월간양계 창간 37주년이 빛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계인을 대변하여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와 소비자에게 양계업의 어려운 경영 및 주변의 환경여건과 양계산물의 우수성을 전달하여 양계산물의 소비촉진과 우리 양계업을 영위하는 양계농민에 대한 정부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많은 양계인들이 참여하여 양계에 대한 생산정보나 소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며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양계업을 30년 가까이 경영하면서 생산환경과 소비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며, 생산은 직접 양계업을 하면서 느끼고 배우며 개선해 왔으나 소비환경에 대한 부분은 정보가 미흡하여 양계산물의 유통(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소비환경에 대한 부분을 월간양계지면에 할애를 많이 하여 우리 양계인들의 의식전환을 통한 양계산물에 대한 올바른 유통정보로 안정된 소득을 통한 양계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이 발전되면서 세계적으로 산업혁명 이후 모든 생산물이 생산을 하면 당연히 팔려나가는 시스템이었으나, 지속적인 산업의 발전과 소득이 향상되면서 소비자의 요구반영으로 인한 소비자 요구에 맞는 제품만이 팔리는 시대가 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의 품질 등의 차별화 없이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소비자 시대와 생산물의 차별화를 통한 소비자에게 알리는 마케팅 시대로 발전되는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국내의 산업이 발전되면서 우리양계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생산도 많은 신종질병들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유통으로 인한 손실이 많이 발생되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우리 양계산업도 이러한 소비자 환경에 대한 변화를 직시하고 고품질의 양계산물을 생산하여 국내의 양계산물의 소비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도록 양계인들의 힘을 모을 때가 왔습니다. 또한 유통의 변화로 인한 대형유통업체의 바이잉파워(Buying Power)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계산물의 계획적인 생산이 필요합니다. 양계산물의 과잉생산은 잉여물량으로 인한 유통이 물란해지므로 가격할인행사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생산을 할 수 있는 양계인들의 계획적인 생산시스템과 마인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06년 9월 현재 산란계를 예로 들면 약 5,560만 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는 추석특수 등을 고려한 산란노계의 미 도태로 인한 산란계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없이 특수를 노리고 생산하는 것은 양계산물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품질의 하락으로 인한 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인 양계업의 불황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양계인들의 계획생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양계산물의 계획생산을 통한 고품질 생산으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안정된 소득으로 생산기반을 안정시켜 나가야할 때입니다. **양계**

## 생산자와 유통인은 산란업의 동반자

최 흥 근 (사)한국계란유통협회장

양계산업과 희노애락을 함께한 ‘월간양계’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월간양계’는 양계농가에 유익하고 새로운 기술정보를 전달하여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1인당 연간 계란소비량 200개 시대인 요즘에 1960년대 초의 1인당 연간 계란소비량 3.6개를 돌아보면 산란업계는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라 부를만한 엄청난 발전의 시기를 거쳐 왔습니다.

이 모두 생산자와 유통인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도 않고, 도로도 비포장 도로가 대부분이었던 시절, 새벽이슬을 맞으며 털경거리는 운전대를 잡고 생산농장까지 가서 계란을 직접 수거하여 소비처까지 운송·유통하였던 계란유통인들이 있었기에 소비자들은 주변에서 신선한 계란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시장은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또한 근래에 볼 때, 난좌폭귀현상이 심해져 어찌보면 황포라 부를만한 난좌업체들의 가격인상과 공급차질에 생산인과 유통인이 모두 ‘울며겨자먹기’로 일방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으나, 뜻있는 계란 유통인 약 20여명이 결국 울분을 못참고 이문제의 해결을 위해 직접 중국에 난좌공장을 세우고 곤지암 인터체인지옆에 천우텍 난좌물류센터를 세워 유통시킴으로써, 국내 난좌유통가격을 무려 20원이상 인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유통인 뿐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엄청난 수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통인들의 노력이 생산자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는 만큼, 생산자와 유통인들은 산란업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높아진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는 웰빙시대, 소비자농식품 시대에 걸 맞는 품질 좋고 안전한 계란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데 서로의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동반자적 자세는 FTA의 거대한 파고에 맞서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작년 미국의 계란시세는 연평균 원화 40원 이하로 형성되어 우리나라에 52원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한 농장의 계군이 우리나라 전체 계군의 20%에 달하는 천만수 이상의 대단위 농장도 허다한 형편이라 호시

탐탐 FTA 체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의 시장상황도 마찬가지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는 국내의 굴지 대기업체란 브랜드에서 이미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 FTA가 대다수의 산란업 생산자와 유통인들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단위의 냉장수입 시스템 및 물류시스템을 갖추 수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체들에게는 호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계란 유통협회에서는 국내 계란만을 판매한다는 인증서를 회원들에게 발급하고,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으며, 단 한개의 외국계란도 유통시키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구운 계란에 있어 수입산 계란 취급율이 한때 80~90%까지 이르렀던 것을 0%로 끌어내렸으며, 몇 년전 모 무역회사가 가져온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외국계란을 유통시켜주지 않아 끝내 폐기처분에 이르게 한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이 문제에서 만큼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나라 산란업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시장개방 상황에 맞서, 대기업체에 비해 약자인 우리 유통인과 생산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을 모아 우리의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시키겠다는 마음자세를 더욱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생산자 및 양계협회에 이 시점에 즈음하여 몇가지 더하고 싶은 말은 첫째, 유럽의 AI의 영향으로 인한 원종계 수입 차질 때문에, 산란계 가담계군이 부족할 상황에 대비하여 수위조절을 하는 차원에서 생산계군 감축을 늦추어 왔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농가들도 과감하게 고주령노계들을 폐기처분해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둘째, 낙농, 양돈, 한우 등의 자조금 사업이 몇 십억·백억을 넘어 인구에 회자되는 CM송까지 퍼트리며 순항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산란계 산업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을 보이

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조금 거출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산란계 자조금이 산란업 발전을 위해 뜻 깊게 쓰여 지길 기대합니다. **양계**

## 개방화와 함께 소비자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자

장 동 일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장

병술년(丙戌年) 개의 해를 맞이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가을걷이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한가위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계절에 월간양계의 37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양계산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 한 해 동안 양계산업은 100년만의 폭설과 여름동안의 혹서로 큰 피해를 입음은 물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양계산업 전반에 걸쳐 큰 위기를 맞이하면서 약 2~3개월 동안 양계업계는 양계산물 소비가 많게는 70%까지 감소하고, 치킨외식업체들의 부도가 속출하였습니다. 이에 대비책으로 양계산업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언론사의 협조로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킴으로써 이를 불식시켜 단시일 내에 정상 회복을 이루었지만, 수급불균형에 의한 양계산물 값의 큰 폭 상승으로 시장이 외적으로는 활기를 찾는 듯 했지만 환경요인에 대한 양계농가의 피해가 커서 소득불균형이 심각한 한해였습니다.



더구나 2005년에는 ND, IB, 가금티푸스 등이 중복 감염되면서 피해가 더욱 심화되었는데, 매년 되풀이되던 질병발생 양상과 매우 달랐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언론에서는 전문가적인 견해 없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함과, 알아야할 권리라는 명목 하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조류인플루엔자 전염이라는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일반인에게 일부 과장된 내용만을 전파하여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되게 하였

고, 양계산물의 가격 폭락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양계산업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언론사에 언론보도 자제를 요구하고 올바른 보도를 요청하는 등 양계산업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갔음에도 소비자의 의식이 안전한 먹거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의식구조를 바꾸는데 애를 먹어 양계산업이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끊임없이 논의가 되고 있는 FTA로 다른 산업뿐만 아니라 갖은 풍파를 겪은 양계산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의 양계산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축산업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적어지고, 수입 개방에 따라 농업의 기업으로 발전한 외국의 값싼 양계산물과 경쟁하게 되었으며, 대내적으로는 생산여건이 점차 열악해지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한때는 일본의 모든 재벌이 양계산업에 참여하였다가 이제는 국내 생산에서 수입업자로 변모해 가는 것을 보며 우리의 앞날을 예상해 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여건에서 양계산업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를 월간양계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언론이 양계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몇 번의 잘못된 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답습되지 않도록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우리의 양계산업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방화와 질병에 대한 고비를 넘겨 깨끗하고 안전한 양계산물을 생산함으로써 현재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전락하여 존립 위기에 처하

지 않도록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방화와 함께 소비자의 변화에 민감하여야 합니다.

국내 산업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해외취업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에 쉽게 접근함으로써 값싸고 영양분이 많은 닭고기와 계란 등 양계산물을 구매하던 입장에서, 맛과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의 확산으로 소비구조가 급격히 변해가고 있고, 예로 지난 만두과동 때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보았듯이 안전하지 않거나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지 않는 먹을거리는 쉽게 소비자들로부터 배척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소비자도 변화하고 외국의 양계산업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국들이 어떻게 변화하여 가고 있으며 그들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격은 시행착오는 무엇이고 성공적이었던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 어떻게 한국화 할 것인가 등 준비해야 될 일들이 더욱 많아지고 이러한 경영, 생산, 기술, 정책, 소비, 유통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월간양계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고 중요해질 것입니다.

더 많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자문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관리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월간양계의 역할이 새삼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를 맞이하여 대한양계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특히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관련 여러 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 번 창간 37돌을 축하드립니다. **양계**